

세계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의 오너가 돼주세요

담양군, 대나무밭 보전·관리 위해 25일까지 모금 활동 3만원 이상 펀딩 참여자 농산물 꾸러미·팝파티 초대권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의 오너가 되주세요.”

담양군이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이자 제4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담양 대나무밭’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담양 대나무밭 클라우드 펀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담양 대나무밭은 예로부터 살아있는 금을 캐는 ‘생금밭’이라 불리며 지역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생태적 가치와 독창적 경관 등이 높이 인정받아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으면서 대나무밭을 관리할 인력이 크게 줄었고, 이전 주민의 힘만으로는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역민과 도시민이 함께 대

나무밭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게 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5일까지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진행된다.

펀딩으로 조성된 기금은 ▲대나무밭 복원과 보전 ▲훼손된 대밭의 긴급 정비 ▲농민·도시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펀딩에 3만원 이상 참여한 오너에게는 대나무밭 농사일기와 죽제품·죽로차·쌀 등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대나무밭 팝파티 초대권도 받을 수 있다.

주인협체의인 ‘대단한 담양대밭’ 윤재휘 대표는



안내 리플릿.

“이번 펀딩이 1회성 모금이 그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이 지역 유산을 함께 보전해 가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담양 ‘쓰담길 야시장 월담’ 5일 개막

군, 다미담 예술구서 27일까지...플리마켓·농산물 반값 장터 등

담양에 버스킹, 플리마켓, 반값 장터,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열린다.

담양군문화재단은 담양의 지나온 시간과 기억을 품은 다미담 예술구서에서 5일 ‘쓰담길 야시장 월담’ 개막식을 갖는다. 야시장은 27일까지 매주 금, 토 총 8회에 걸쳐 열린다.

담양의 근현대 건축물이 복원된 이색공간을 배경으로 ▲쓰담길 플리마켓 ▲농산물 반값 장터 ▲버스킹 ▲기획전시 ▲쓰담길 스토리투어 ▲담양판다 ‘쓰담이’ 포토존 ▲천 원 맥주 ▲스탬프 투어 등 지역 상인과 예술인,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개막식 자리에서는 담양중, 수북중,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등 관내 중학생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형 캔버스에 다미담예술구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 팬더 쓰담이와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까지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9월 가을밤 다미담 예술구 거리 곳곳을 밝히는 야간조명은 낮과는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할 것”이라며 “담양의 정치와 분위기를 한층 더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나주시, 내년 국비 4601억 반영... ‘에너지 수도’ 청신호

차세대 전력망·관광·농생명 등 핵심사업 반영...미래 성장 기반 구축

나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에너지 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에 필요한 핵심 사업비를 대거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60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 현안사업에 쓰일 국비는 1633억원이 배정됐다. 나머지 2968억원은 도로, 철도 등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이 같은 성과는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 속에서 지역 실정에 꼭 맞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반영한 것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에너지·관광·농생명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핵심사업을 나주가 선제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에너지 수도’ 위상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인제 창업 벨리 조성 195억원’, ‘빛가람 호수공영장·영산강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67억원’, ‘동부권 5개 읍면 농촌 협약 활성화 사업(남평읍·금천면·산포면·봉황면·다도면) 83억원’, ‘고전력 반도체 가속 수명 인프라 구축 50억원’ 등이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 육성사업 20억원’,

‘농생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7억원’, ‘현애원 가족농노 공공처리시설 개선 4억원’, ‘영산강 도시생태축 복원 7억원’도 반영됐다.

나주를 경유하는 SOC 확충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강진 고속도로 1단계’에 2968억원이 배정됐다.

나주시는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통해 에너지 산업은 물론 농생명, 관광, 환경 분야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남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특히 차세대 전력망 인제 육성과 창업 벨리 조성 등 미래 에너지 핵심사업이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신혼·다자녀가구 주택 이자 지원 확대

가구당 최대 1080만원... ‘보증자리’ 10월17일까지 모집

나주시가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나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증자리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 49가구를 10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책이다.

특히 나주시는 물가상승과 금리부담을 고려해 시비 5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구당 최대 월 30만 원씩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49가구로 10월17일까

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9월30일 사이에 6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영화관, 군민의 문화공간 자리매김

개관 4개월 만에 1만2000명 관람 2+1·반값 할인·천원 영화 등 다채

강진영화관이 지난 4월 개관 이후 4개월 만에 총 관람객 1만2000여명을 기록하며 군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진군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운영했다. 6월부터 관람료 50% 할인 행사인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2+1 이벤

트’를 도입해 가족·친구 단위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8월에는 ‘영화 관람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천 원 영화’에 2700여명이 참여하며 인기를 끌었다. 오는 6일에도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해 군민 관람료 50% 할인을 이어간다.

강진군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지난 1일 장성군민운수 소속 기사 30여명으로 구성된 교통봉사조직 ‘패트롤팀’이 창단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성군 제공)

장성버스터미널 안전 지킴이 ‘패트롤팀’ 뜬다

장성군민운수 기사들 창단...안전지도 등 본격 활동

“장성버스터미널 안전, ‘패트롤팀’이 지키겠습니다.”

장성군 농촌버스 운영을 맡고 있는 ‘장성군민운수’ 소속 기사 30여명으로 구성된 교통봉사조직 ‘패트롤팀’이 창단했다.

이들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평일마다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안전 지도 활동을 펼친다. 지정된 승·하차 장소 이용 안내와 터미널 내 자전거·오토바이 무단횡단 금지 계도, 보행자 안전 확인 등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한다.

패트롤팀의 정식 창단은 지난 1일 했지만, 이들의 봉사 활동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미 시작했다.

최승열 패트롤팀 팀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창단식에서 패트롤팀은 신중위반 금지, 지정 장소 하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승객·보행자 안전 향시 고려 등을 결의하는 서약식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발적인 봉사에 나선 ‘패트롤팀’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군도 농촌버스 안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가을 낭만 제대로

자연친화적 환경·편의시설 다양

사계절 가족 단위 캠퍼들에 인기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을 맞아 캠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천공원은 넓은 녹지와 쾌적한 시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도심 속 캠핑장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캠핑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을철에는 고요한 숲속 분위기가 어우러져 캠퍼들에게 최적의 자연 휴식처를 제공한다.

캠핑장은 전기, 수도,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초보 캠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텐트 간 간격과 차량 주차 공간이 넉넉해 오토캠핑족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인근의 장흥댐이 위치해 가을 산책코스 이용이 가능하고, 심천공원 내에는 야외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및 배밭농수 등 다양한 가족 친화형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계자는 “가을은 캠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심천공원은 그 계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며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의 정취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과 가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청춘신작로’ 거리공연 정례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청년 버스킹...매직 버블쇼·도넛 만들기도

화순군이 5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청년 버스킹을 연다.

이번 무대는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는 금요일 야외공연’을 표방하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정례 운영된다.

화순군은 금요일 정례회를 통해 청춘신작로를 지역 대표 거리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지역 청년들이다. 화순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팀들이 릴레이로 올라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감성적인 대중가요로 분위기를 여는 ‘서남동행복센터’, 능주고 합합팀 ‘맹그루브’, 관객과 호흡하는 솔로 퍼

포머 ‘길상민’, 능주고 밴드팀 ‘엔리미’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 에너지 넘치는 밴드 ‘허밍블루’, 목포대학교 합합동아리 ‘HIPP(히피)’, 능주고 밴드팀 ‘FM’이 라인업을 마무리한다.

공연 전 워밍업 시간도 준비됐다. 오후 5시 30분부터 아이들을 위한 매직 버블쇼가 펼쳐져 가족 단위 관객의 발길을 공연장으로 이끈다. 현장 즐길 거리로는 도넛 만들기 체험, 포토 그림책 만들기, 커피박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관람과 참여가 어려우려는 저녁을 예고한다.

화순군은 이번 정례 공연을 계기로 청년 참여

무대를 상시 확대한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하며, 대상은 전국 7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이다. 버스킹 공연은 물론 5분 스피치 형태의 무대도 신청할 수 있다.

김우미 화순군 청춘신작로팀장은 “청춘신작로 버스킹을 금요일 저녁의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겠다”라며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